

북페스티벌에 관한 연구*

- '2015 성북구 책모꼬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ook Festival: The Case of '2015 Seongbuk-Gu Book Festival'

조 찬 식 (Chan-Sik Cho)**

초 록

독서가 일반화, 대중화되면서 책을 매개로 하는 사회·문화행사인 북페스티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실정과 환경에 맞게 계획되고 구성되는 북페스티벌은 공공도서관 업무와 역할의 연장선이라는 관점, 대중독서운동의 확산과 진흥이란 관점, 지역사회의 문화적 동질감 정립의 관점 등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에 서울시 성북구에서 실시된 북페스티벌(책모꼬지)의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페스티벌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2015 성북구 책모꼬지'의 사례를 배경, 준비과정, 현황분석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페스티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북페스티벌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일조하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public reading campaign has been popular, the book festival, a sociocultural event in relation to the book and reading, becomes a growing public interest. The book festival which could be diversified by each community and its environment would be understood in the perspective of the performance of public library, the diffusion of public reading campaign and the sociocultural togetherness of the community. In that, this study focuses on the book festival of Seongbuk-Gu, Seoul, held in 2015. Specifically, this study looks into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and the background of book festival, examines the case of the '2015 Seongbuk-Gu Book Festival' systematically, and analyz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book festival, in order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book festival in general.

키워드: 북페스티벌, 대중독서운동, 공공도서관, 사회·문화행사, 성북구
Book Festival, Public Reading Campaign, Public Library, Sociocultural Event, SeongBuk-Gu

* 이 논문은 2015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cho@dongduk.ac.kr)

논문접수일자 : 2016년 5월 23일 논문심사일자 : 2016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자 : 2016년 6월 1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135-149, 201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6.27.2.135]

1. 서론

독서가 일반화, 대중화되면서 책을 매개로 하는 사회·문화행사인 북페스티벌(Book Festival)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책모꼬지, 책잔치, 책문화축제 등으로 명명되는 북페스티벌은 지역사회의 주민뿐만 아니라 도서관, 출판사, 독서관련 기관, 교육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북페스티벌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공유될 수 있다.

북페스티벌은 진공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구성요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북페스티벌은 행사주체, 프로그램, 참여자, 시간과 공간 등의 요소들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북페스티벌은 책과 독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회·문화행사로써 지역사회의 실정과 환경에 맞게 계획되고 구성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북페스티벌은 몇 가지 관점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즉 북페스티벌은 공공도서관 업무와 역할의 연장선이라는 관점, 대중독서운동의 확산과 진흥이란 관점, 지역사회의 문화적 동질감 정립의 관점 등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페스티벌에 대한 관점들은 상호배타적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그 비중이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연관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페스티벌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도 발전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북페스티벌이 미개척된 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북페스티벌이 개최된 지역에서도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북페스티벌이 진정한 지역사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북페스티벌의 내용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페스티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하여 북페스티벌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페스티벌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북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2011년에 시작하여 책모꼬지로 명칭이 바뀐 2015년 성북구의 책모꼬지의 사례를 배경, 준비과정, 현황분석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페스티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북페스티벌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2015년 성북구의 책모꼬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사례분석을 위하여 회의자료, 홍보자료, 리플릿, 안내전단지 등의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관찰과 면담을 수행하는 등의 통합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북페스티벌의 개념

북페스티벌(Book Festival)은 책을 매개로

하여 여러 계층의 대중이 참여하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과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단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회·문화행사이다. 이러한 북페스티벌은 토론 중심의 외국의 독서운동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기존에 다양하게 책과 관련된 행사들을 결집하여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대중독서운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안찬수 2014; 조미아 2014; 조찬식 2013).

북페스티벌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먼저 북페스티벌이란 책이 중심이 되는 커다란 축제이자 문화행사란 점을 나타내는 가장 전통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북페스티벌이란 외래어는 ‘우리말 표기’와 ‘국어사용운동’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에 따라 책모꼬지, 책잔치, 책문화축제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명칭은 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상호교류하고 동질감을 이루고자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페스티벌이 지역축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도서관, 출판사, 독서관련 기관, 교육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만약 북페스티벌이 정치적 의도나 행·재정적인 이유로 지역사회 내의 차별이나 분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북페스티벌의 의의는 반감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되고, 더 이상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는 지엽적인 행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권혁선 2012).

그러므로 북페스티벌이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를 전제로 하며, 책과 관련된 문화행

사를 통하여 책과 독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메카니즘으로 작용할 때 북페스티벌의 의미가 각별하게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2.2 북페스티벌의 구성요소

하나의 문화행사로서 북페스티벌은 진공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개최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북페스티벌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권혁선 2012; 안찬수 2014; 조미아 2014; 조광호 2011).

첫째, 행사주체이다. 일반적으로 북페스티벌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출판사, 독서관련 기관, 교육기관, 책과 관련된 단체나 기업 등에 의해서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사주체는 한 기관 단독으로 개최되기보다는 여러 기관이 공동 또는 협력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행·재정적인 지원과 행사의 호응도를 높이고 대중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효율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이다. 북페스티벌은 당연히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참여자가 직접 체험하는 독서관련 체험행사, 책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도서장터, 도서들을 전시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관람회 및 전시회, 북페스티벌의 진행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공연 및 이벤트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휴먼라이브러리, 강연회, 지역행사, 먹거리장터 운영 등이 북페스

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진행되며, 해당 북페스티벌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어 진행된다.

셋째, 참여자이다. 북페스티벌의 참여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북페스티벌이 지역사회의 문화행사란 점에서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망라한 지역사회 주민이 행사대상으로 참여한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아동층이나 가족단위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은 북페스티벌의 정서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측면의 참여는 도서관, 출판사, 독서관련 기관, 시민단체, 교육관련 기관 등이 행사진행을 위해 참가하는 경우로, 사회문화적 풍부함과 다양함을 바탕으로 북페스티벌의 의의를 살리게 된다.

넷째, 시간과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북페스티벌은,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가을에 개최된다. 이는 가능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혹한기와 혹서기를 피하고, 또한 북페스티벌의 준비기간을 감안한다면 봄보다는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타당하다는 당위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북페스티벌의 시간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공간적인 요인이다. 북페스티벌은 실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야외나 공연장에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의 범위와 환경에 따라 '장소'의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어 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북페스티벌은 행사주체, 프로그램, 참여자, 시간과 공간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북페스티벌은 계획의 단계부터 각 구성요소들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파악과 분석을 기초로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3 북페스티벌의 관점들

북페스티벌이 책과 관련된 문화행사란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 동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북페스티벌은 몇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들은 상호배타적인 아닌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첫째, 공공도서관 업무라는 관점이다(이만수 2008; 서울도서관 2015). 공공도서관의 업무는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와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일부 북페스티벌은 출판사나 서점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실시되고 있어서 모든 북페스티벌의 개최에 공공도서관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페스티벌은 공공도서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북페스티벌을 공공도서관의 업무와 역할의 연장선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대중독서운동의 확산과 진흥이란 관점이다(이만수 2008; 조찬식 2013). 북페스티벌은 책을 매개체로 기존의 개인적인 읽는 행위로만 그치는 독서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 간의 사고와 정서를 교류하는 대중독서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독서란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행위로 치부되었으며 독서와 관련된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의 표출이 크게 환영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

중독서운동의 의미가 각별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공간이라 간주하는 독서의 개념을 공중 또는 대중의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즉 대중독서운동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책을 읽고 교감하는 공동체적 독서운동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 사고의 다양성과 정서적 복합성을 교류하는 대중적 문화영역으로 그 범주를 넓힌 것이다. 이에 책이나 독서와 관련된 행사를 통하여 대중적 독서와 관련된 욕구와 흥미를 자극하기 위한 북페스티벌은 대중독서운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란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문화적 동질감 정립의 관점이다(권혁선 2012; 조광호 2011).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대중적 행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그 행사의 목적에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동질감을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짐을 희망하게 된다. 북페스티벌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열린 공간에서 함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그리고, 입으로 말하며, 가슴으로 느끼는 오감만족의 새로운 독서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행사로 동일한 지역의 구성원이 함께 책을 통하여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찾아가는 활동으로 궁극적으로 문화적 균등화와 평준화를 지향하게 된다. 즉 북페스티벌을 통하여 친편일률적으로 사고의 획일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사고와 정서상의 동질성과 이질감을 인식하고 인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적 동질감을 정립하고 건전한 민주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북페스티벌에 대한 관점들은 각각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

으나 어느 것도 전체를 일반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들은 그 비중이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연관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3. 2015 성북구 책모꼬지 운영실태 분석

3.1 배경

성북구는 거주 인구가 약 50여만 명에 달하며 서울의 도심과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지역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및 대학 7개교가 위치하고 교육기관 66개소, 의료시설 555개소, 종교시설 467개소, 외국대사관저 38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문화적 기반이 든든한 지역자치단체이다. 또한 성북구에는 성북정보도서관이 2002년에 건립된 이래 관내 9개의 구립도서관이 설립되어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현재 성북문화재단에 의해서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20개의 새마을 문고를 포함한 약 40개의 작은도서관이 성북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서관문화적 기반 또한 확고하게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문화적 환경과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을 기반으로 성북구는 2011년에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중독서운동으로 '한 구(區), 한 책읽기'를 표방한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기점으로 매해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대중독서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과정의 초기에 독서운동을 주도하는 민관거

버년스로 '책읽는성북추진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다. 성북구의 책 읽는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성북구청장의 직속기구로 발족한 '책읽는성북추진협의회'는 독서진흥에 관련있는 전문가, 교수, 학교장, 학부모대표, 출판사대표, 시민단체, 역량이 있는 전문가 등과 당연직인 성북구립공공도서관 대표자(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와 구청담당직원으로 구성되었다(조찬식 2013).

성북구의 북페스티벌은 대중독서운동인 '원북, 성북'의 일환으로 2011년 10월부터 매년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북구의 북페스티벌은 "주민이 독서의 즐거움과 자부심, 화합의 정을 느끼는 행사"라는 주제 아래, 첫째,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책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독서진흥효과를 제고하고, 둘째, 축제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하여 아이들과 어른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북페스티벌 자체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셋째, 주민 결속 및 주최 기초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주민을 배려하는 마음과 수준 높은 행사를 통한 성북구민으로서의 자부심 고취를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이후 '책읽는성북추진협의회'의 주도로 개최

된 성북구의 북페스티벌의 개최상황을 2014년에 이르기까지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나듯이 성북구 북페스티벌은 개최가 거듭되면서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개최시기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바뀐 점이다. 2011년 성북구 북페스티벌은 최초의 행사인 만큼 많은 인원의 참여를 고려하여 일요일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행사 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교활동 등의 이유로 '토요일 북페스티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의 북페스티벌은 토요일에 개최되었다.

둘째, 북페스티벌 명칭의 변경이다. 성북구 북페스티벌이 처음으로 개최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통적인 북페스티벌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런 가운데 2014년 8월에 열린 '책읽는성북추진협의회'에서 2013년 한글날에 공포된 「성북구 한글사랑 조례」에 따라 '페스티벌'이라는 외래어 명칭에 관한 안전이 토의되었고, 그 결과 순우리말로 '축제'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 놀이판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 '모꼬지'란 명칭으로 페스티벌을 대체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북페스티벌을 책모꼬지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셋째, 개최장소의 변화이다. 성북구 북페스티벌의 첫해인 2011년에는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길음뉴타운의 한 광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어 주

<표 1> 성북구 북페스티벌의 개최 현황(2011-2014)

개최시기	명칭	개최장소	참가현황	행사내용
2011.10.09(일)	북페스티벌	길음뉴타운광장	29개단체/2,500명	북콘서트/전시회/도서관관련 체험프로그램/휴먼라이브리/강연회/공연 등
2012.09.15(토)	북페스티벌	삼선어린이공원	20개단체/2,675명	
2013.09.28(토)	북페스티벌	삼선어린이공원	32개단체/4,500명	
2014.10.18(토)	책모꼬지	삼선어린이공원	52개단체/6,300명	

민들 특히 가족단위의 참여가 높았다. 그러나 북페스티벌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는 삼선동에 위치한 삼선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삼선공원은 조선말의 최고 군사기관이자 서울시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된 삼군부총무당(三軍府總務堂)이 위치한 문화적 공간으로 대중독서운동의 문화적 상징성을 살리기에 적합하다는 동의를 바탕으로 성북구 북페스티벌의 장소로 결정되었다.

넷째, 참여와 프로그램의 꾸준한 성장이다. 성북구 북페스티벌의 개최장소가 길음뉴타운 광장에서 삼선공원으로 바뀐 2012년에만 참여단체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독서관련단체를 엄선하는 과정에서 약간 줄었으나, 성북구 북페스티벌의 참여나 프로그램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다. 이는 성북구의 북페스티벌이 대중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반증이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동질감과 평준화를 도모하는 축제로 성장·발전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2 '2015 성북구 책모꼬지' 준비과정

2015년 성북구 책모꼬지는 2015년 7월 14일에 개최된 제7차 '책읽는성북추진협의회'에서 성북구 대중독서운동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책모꼬지 일정 및 장소, 추진 일정 등에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리고 책모꼬지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준비할 '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그 구성은 '책읽는성북추진협의회'의 위원과 구립도서관장 및 실무담당 사서를 포함하여 13명으로 이루어졌다.

'기획단'은 8월 13일에 열린 제8차 '책읽는성

북추진협의회'까지 2차례의 공식행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모임과 실무내용을 점검하여 책모꼬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2015 책모꼬지 목표 및 방향, 2015 책모꼬지 주제 및 컨셉(행사명), 행사 운영시간 및 장소 공간구성 논의, 참여단체 범위, 기획단원들의 실무 역할 논의, 메인행사 구성 논의, 향후 진행사항 및 일정 검토 등이었으며, '책읽는성북추진협의회'에서 공유되고 논의되었다.

8월 27일에 개최된 제9차 '책읽는성북추진협의회'에서는 '기획단'의 후속 준비사항을 바탕으로 2015 책모꼬지 소제 구체화, 2015 책모꼬지 장소 세부 공간구성 및 세부 행사 논의, 2015 책모꼬지 행사명 공모결과 심사, 예상 참여단체 검토, 메인행사 구성, 향후 진행사항 및 일정 검토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책모꼬지가 개최될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상황과 행사계획의 내용을 비교하고 점검하였다. 그리고 2015 성북구 책모꼬지를 위한 실무진행, 현장점검, 홍보, 참여단체 관리 등 '책읽는성북추진협의회'와 '기획단'의 준비작업은 이후 행사시점까지 계속되었다.

이상의 준비과정에서 결정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성북구 책모꼬지는 '2015.9.19.(토) 11:00-17:00'에 개최되며, 예전과 유사하게 메인행사, 부스운영, 전시행사, 공연 및 이벤트 등을 포함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둘째, 행사장소는 동덕여자대학교로 결정하였다. 이는 개운산과 미아리고개를 경계로 소위 '성북갑'과 '성북을'로 나누어지는 성북구의 지형에서, 기존의 북페스티벌이 '성북갑' 지역에서만 진행돼왔던 점을 감안하여 '성북을' 지역에서 행사진행이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동덕여자대학교가 적당한 장소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며,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정이다. 셋째, 2015년 성북구 책모꼬지의 행사명과 주제/컨셉은 “2015 성북 책모꼬지: ‘소금 길 따라 칙칙폭폭’”으로 하였다. 이는 성북구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된 『소금』에 나오는 정거장명으로 행사장을 구분하여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기초한 것이다.

3.3 ‘2015 성북구 책모꼬지’ 현황분석

성북구 월곡동에 위치한 동덕여자대학교 본교캠퍼스에서 2015년 9월 19일에 ‘소금 길 따라 칙칙폭폭’이란 행사명으로 개최된 성북구의 ‘2015 책모꼬지(Book Festival)’의 개요는 아

래의 <표 2>와 같다.

다음의 ‘2015 성북구 책모꼬지’의 진행에는 65개의 단체에서 411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2014년도 책모꼬지에 52개의 단체가 참여한 것에 비하여 성장한 것이며 또한 28개의 단체가 신규참여하여 성북구 책모꼬지의 외연을 확장하였으며, 성북구 2015 책모꼬지에 참여한 단체를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그리고 ‘2015 성북구 책모꼬지’에 참여인원은 총 6,322명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위 참가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총 317명이 응답하였으며, <표 5>는 ‘2015 성북구 책모꼬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 가장 응답빈도가 높은 항목을 2014년 책모꼬지의 결과와 비교·정리한 것이다.

<표 2> ‘2015 성북구 책모꼬지’ 개요

구분	시간	내용	비고
프로그램 부스 운영	11:00~17:00	주제관/홍보·전시관, 먹거리장터, 다양한 독서체험프로그램 등 도서관 및 독서회, 관내 유관단체, 출판사 등 40여개 부스 운영	- 성북구립도서관, 성북문화재단 사업장, 작은도서관네트워크, 출판사, 관내 유관 단체 및 독서관련 단체 등
메인 프로그램	14:00~15:00	개막식, 길놀이 한마당, 북콘서트, 아리랑 난타 공연 등	- 개막식, 축사, 유공자 표창 - 길놀이 한마당(코브라타임) - 성악공연(슈필렌) - 아리랑 버킷 난타(성북여성회관)
부스 외 행사	11:00~17:00	아버지 초상화 스케치, 캐리커처, 풍선아트, 종이접기 이벤트 및 미니 콘서트, 권문회 작가와의 만남, 오픈 강좌 등	- 아버지 초상화 스케치, 캐리커처 이벤트 (리얼모션) - 전시: 도서관의 서재, 독서회의 서재, 월곡, 석관, 장위지역 역사문화 히스토리 전시, 우리 엄마아빠 어렸을 적 추억의 책 - 종이접기, 풍선아트, 그림책 스토리텔링, 돛자리도서관 등 이벤트존 - 권문회 그림작가와의 만남, 미스터리 추리작가/제3세계문학 오픈 강좌
참여단체 한마당	17:00~18:00	책모꼬지 참여단체 함께하는 마무리/이야기 한마당	- 참여단체

〈표 3〉 '2015 성북구 책모꼬지' 참여단체

구분	단체수	단체개요	비고
공연 및 이벤트	14	교육기관, 공연팀, 동호회, 연구회, 독서회, 문화기관 등	음악공연, 행진, 강연, 해설, 북콘서트/시낭송회, 시연 등
독서체험부스 운영	45	공공도서관, 출판사/서점, 독서회, 여성단체, 교육기관, 시민단체, 구청관련기관 등	책읽기, 도서소개, 독서관련행사 및 공연, 책장터 운영, 독서문화행사, 각종 문화행사 등
후원	6	도서관, 서점	기념품
전시 및 자료제공	2	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월곡동 주민센터	전시회

* 참여단체수의 합이 67개인 것은 후원단체 중 2개의 서점이 독서체험부스 운영에도 참가한 결과임.

〈표 4〉 '2015 성북구 책모꼬지' 참여인원

구분	인원(명)
전시 및 체험 부스	3,855
메인 프로그램	350
기타행사	2,117
합계	6,322

* 미포함: 참여단체 한마당 80명과 자원봉사자(학생) 215명

〈표 5〉 '2015 성북구 책모꼬지' 설문조사 결과

구분	2014년 책모꼬지		2015년 책모꼬지	
	거주지 참여	종암(20%) → 돈암(13%) → 삼선(10%) *월곡(3%), 장위(2%), 석관(1%)		월곡(38%) → 종암(14%) → 정릉(11%) *길음(8%), 돈암(5%), 삼선(1%)
참여자연령대	40대	31%	40대	48%
도서관이용횟수	월 1-2회	32%	월 1-2회	39%
연간독서권수	10권 이상	39%	10권 이상	49%
참여경로	지인 추천	46%	도서관/홍보물	55%
직업	주부	38%	주부	58%
도서관 관심도	도서관 방문 의향	90%	도서관 방문 의향	98%
동참하신 분	지인/친구	45%	가족/친척	70%
만족한 프로그램	전시체험공간활동	71%	전시체험공간활동	58%
책모꼬지 참여횟수	1회	67%	1회	81%

〈표 5〉에 나타나듯이 '2015 성북구 책모꼬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별 참여인원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개최되었던 북페스티벌이나 책모꼬지는 소위 '성북갑' 지역이라는

종암동, 돈암동, 삼선동 지역주민의 참여가 많았으나, 2015년도에는 처음으로 '성북을' 지역 개최됨에 따라 월곡동, 종암동, 정릉동 지역주민의 참여가 높았으며, 처음으로 북페스티벌이

〈표 6〉 '2015 성북구 책모꼬지'의 '좋았던 점'과 '개선사항'

좋았던 점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과 하는 체험활동과 책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다. - 매년 이런 행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 무척 맘에 듭니다.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네요. - 다양한 체험부스가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 공간이 아늑하고 산만하지 않아 좋았음. -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컨셉이 매우 좋았음. - 먹거리부스가 다른 부스들과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되어 커피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 좋았음. 체험부스 쪽에서는 체험에 집중할 수 있었음. - 체험활동이 무료여서 좋았지만 약간의 유료 프로그램도 추가하여 좀 더 질 높은 작품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 좋은 행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다수) - 많은 프로그램과 사람에 비해 부스 및 공간 부족(다수). 책모꼬지 더 크게 해주세요 - 좀 늦게 왔더니 끝나는 부스가 많았다. 많이 준비해 주세요.(다수) - 중고책 베품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 모꼬지, 책의 의미를 좀 더 잘 돋보이게 하면 좋겠다. - 행사횟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 교통이 편한 곳이면 더 좋겠어요. - 오늘 너무 더웠습니다. 10월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 - 홍보부족.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홍보물 배부 등 - 유아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았으면 한다.

나 책모꼬지에 참여한 주민이 80%를 넘는 등 지역적 접근성 따른 참여자의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책모꼬지에서는 전시체험(71%)에 만족도가 집중되었으나 '2015 성북구 책모꼬지'에서는 전시체험(47%) 및 이벤트존(22.7%), 포토존과 독서공간(15.7%) 등에 만족도가 분포되어 있어서 준비과정에서 행사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한 새로운 시도들이 성북구 책모꼬지의 내용적 다양화를 불러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경로에서 보여지듯이 도서관, 거리 현수막, 안내장 홍보 등 오프라인 홍보와 적절한 SNS 등 온라인 홍보효과로 새로운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어, 책모꼬지 같은 대중적 행사에서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의 확대를 위한 노력과 홍보는 2015년 책모꼬지 전반적 만족도로 귀결되었는데, 설문응답자 중 매우만족(44.1%)과 만족(35.9%) 등 전체 80% 이상이 '2015 성북구 책모꼬지'에

대해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책모꼬지 재참여 의사가 93.5%, 추천의사가 93.2%, 지역 도서관에 방문 및 이용 의사가 93.2% 등으로 책모꼬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인식변화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과 '개선사항'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4. 논의 및 제언

지금까지 북페스티벌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을 포함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2015 성북구 책모꼬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2011년 북페스티벌에서 시작한 성북구의 책모꼬지는 이제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책 관련 행사' 또는 대중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책모꼬지를 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공유와 동질감정립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15 성북구 책모꼬지'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최 장소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참여자 발굴이다. 2015 책모꼬지는 지난 4년간의 경우와 달리 소위 '성북을' 권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책모꼬지로, 앞의 <표 5>에 나타나듯이 그 간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월곡, 장위, 종암, 석관 지역주민의 책모꼬지 참여가 높았으며, 책 모꼬지에 처음 참가하는 관람객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적 접근성 따른 참여자의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책모꼬지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발판을 구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대학교와 북페스티벌을 연계한 최초의 축제모형 개발이다. '2015 성북구 책모꼬지'를 소위 '성북을' 지역에서 개최하고자 했을 때 관내 동덕여자대학교를 행사장소로 사용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주민행사를 위한 문호개방에 비교적 소극적인 대학교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평소 성북구 청과의 친밀한 관계와 주민에게 캠퍼스를 개방하고자 하는 대학본부의 의지가 진지한 상호교류를 타고 부합하여 지역축제인 북페스티벌이 처음으로 대학교의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관내 대학교에서 진행된 '2015 성북구 책모꼬지'를 통하여 행사를 위한 공간제공 및 동덕여자대 학생들의 주체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관내 대학과의 인적, 물적 공유를 통한 지역신뢰감을 제고하게 되었고, 대학 캠퍼스의 쾌적함과 안락함을 통해 축제의 환경적 만족감 향상을 얻었으며, 지역주민에게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던 대학이 지역축제를 위한 캠퍼스 공유로 이

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의 장 마련하는 전기가 되었다. 나아가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2015 성북구 책모꼬지'를 계기로 관내 대학들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책모꼬지 참여단체 증가를 통한 공동의 가치 공유와 의미의 확대이다. 성북구 책모꼬지에 참여한 단체는 2014년 52개 단체에서 2015년 65개 단체로 확대되었다. 이런 '2015 성북구 책모꼬지' 참여단체들은 책모꼬지 설명 및 업무분장, 현장 및 진행설명회, 참여단체 및 기관 설명회 및 장소 답사 등으로 책모꼬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설계하였다. 그리고 행사 후에 마련된 '참여단체 한마당'을 통해서 '함께하는 의미'를 평가하여 참여단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을 제고하였다.

넷째,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도서관과 독서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감 제고이다. 앞의 <표 5>에 나타나듯이 '2015 성북구 책모꼬지'에 참여주민의 도서관과 독서에 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다. 그리고 책모꼬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재참여 의사 및 '주변에 추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북페스티벌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단순 참가자를 점차적으로 적극적인 '책 관련 전문가'로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한 책과 연계한 공간 구성 및 다양한 이벤트 기획이다. '소금 길 따라 칙칙폭폭'이란 부제로 개최된 '2015 성북구 책모꼬지'는 성북구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된 박범신작가의 『소금』에서 따온 정거장명으로 행사장 환경을 구성하

고 지역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시체험에 만족도가 집중했던 2014년 책모꼬지에 비하여 '2015 성북구 책모꼬지'는 전시체험 및 이벤트존, 포토존, 독서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이 책모꼬지를 평가하였다. 이는 환경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전반적인 책모꼬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여섯째, 홍보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 확대 유도이다. '2015 성북구 책모꼬지'는 광범위한 홍보효과로 '성북갑' 지역에서 참여가 저조했던 정릉과 길음지역의 잠재적 참여자 발굴하였다. 성북구 관내 9개의 공공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그리고 새마을문고 등 관내 도서관인프라를 통해 포스터, 전단지 등의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한 적절한 SNS상의 홍보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현수막의 수량을 확대하여 관내 지역과 동덕여자대학교 주변에 게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통한 새로운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였다.

위와 같은 '2015 성북구 책모꼬지'에 대한 분석과 특징을 바탕으로 북페스티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 준비작업이다. 북페스티벌은 기획의 단계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계 속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북페스티벌은 독서문화 창달이라는 공공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중독서운동과 지역사회의 축제라는 틀에서 진행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각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성이 요구되거나 보완점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예컨대 해당 북페스티벌의 의의와 목표 정립, 장소의 선정, 참여단

체들의 통제 및 관리 등은 단순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상호관계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페스티벌은 초기부터 그 범위와 틀에 맞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고 상호간의 연계성과 관련성에 맞게 기획하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효율적인 진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철저한 지역사회 분석이다. 북페스티벌은 지역사회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개념이 구성원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듯이, 지역사회분석은 지역 주민의 교육, 문화, 정보에 대한 요구와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북페스티벌의 방향과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그룹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적, 지리적 환경 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면 북페스티벌은 지역사회와는 별개의 '행사를 위한 행사'로 흐르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괴리감을 조성하고 무관심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탄력적 운영이다. 북페스티벌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 통해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아무리 북페스티벌이 대중적 의미를 갖는다고 해도 참여하는 계층과 구성원의 수준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페스티벌의 구성요소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선정을 다양화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런 구성요소들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여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북페스티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타기관과의 협력이다. 북페스티벌은 지역내 여러 단체나 조직 등 타기관과의 협력강화

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북페스티벌의 필수 구성요소인 장소와 참여단체의 섭외에 있어서 관내의 각급 학교를 포함하여 사회문화기관 등 도서관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하여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문화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함께 계획하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효율성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북페스티벌의 진행에 있어서 타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단순히 외형적이고 양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지할 때 보다 효과적인 북페스티벌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홍보의 강화이다. 북페스티벌은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북페스티벌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주민의 폭 넓은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홍보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홍보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범위는 북페스티벌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북페스티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북페스티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의 지원을 얻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으로,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도서관인프라의 확충과 도서관문화의 기반조성이다. 북페스티벌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거나 진공상태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독자와 도서관에 관한 관심과 이용의 일상화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북페스티벌은 지역사회 주민이 독자와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인프라가 마련되고 도서관 이용이 보편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인프라의 확충과 도서관문화의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 도서관끼리의 협력체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북페스티벌이 다른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의 연장선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운영되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페스티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북페스티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 결 론

지금까지 책을 매개로 하는 사회·문화행사인 북페스티벌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2015 성북구 책모꼬지'의 사례를 배경, 준비과정, 현황분석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페스티벌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북페스티벌에 대한 이해증진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북페스티벌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된 도서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서관을 통한 북페스티벌은 단순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장뿐만 아니라 대중독서운동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과 동질감 확립을 위한 상호이해의 증진과 문화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역사회 문화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특산물, 문화재, 특성화 사업 등과 연관된 문화행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행·재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각 지역사회와 도서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이 미진한 북페스

티벌은 일회성 행사로 흐르게 되며, 그 역할과 범위가 지극히 국소적이고 제한적이며 실제적인 파급효과는 기대수준을 훨씬 못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페스티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지역사회와 도서관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페스티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2015 성북구 책모꼬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북페스티벌의 보편성과 대중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문화권에서 진행되는 사례도 연구되어야 하며, 지역의 다른 사회·문화행사들과도 비교·분석되어 북페스티벌에 대한 보다 통합된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혁선. 2012. 지방공기업이 주관하는 최초·최대·최고의 북페스티벌 강동 북페스티벌!.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8(1): 131-140.
- 서울도서관. 2015. 『2014 제7회 서울 북 페스티벌 평가보고서: 서울 북 페스티벌 평가를 통한 도서관 책축제 효과 조사』. 서울: 서울도서관.
- 안찬수. 2014. 국내외 북페스티벌의 현황과 전망. 『국회도서관』, 51(9): 14-21.
- 이만수. 2008. 독서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409-430.
- 조미아. 2014. 북페스티벌과 독서문화진흥. 『국회도서관』, 51(9): 4-13.
- 조광호. 2011. 『도시 축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공간구조화 방법론에 대한 연구: 충무로 국제영화제의 축제공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계획전공.
- 조찬식. 2013.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47(2): 201-22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Chan Soo. 2014.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spec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Book Festival." *National Assembly Library*, 51(9): 14-21.
- Cho, Chan Sik. 2013. "A Study on the Public Reading Campaign: The Case of "One Book, Seongbuk" Campaign in Seongbuk-Gu,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01-221.
- Cho, Kwang Ho. 2011. *Study on the methodology for structuring of festive space for the invigoration of city festivals*. MA Thesis. DanKuk University.
- Cho, Mi Ah. 2014. "Book Festival and Public Reading Promotion." *National Assembly Library*, 51(9): 4-13.
- Kwon, Hyuk Sun. 2012. "Gangdong Book Festival: The First, Biggest, and Best Book Festival Hosted by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Public Enterprises*, 8(1): 131-140.
- Lee, Man Soo. 2008. "A Study on the Events of Public Library for Reading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409-430.
- Seoul Metropolitan Library. 2015. *2014' the 7th Seoul Book Festival: An evaluation Report*. Seoul: The Library.

